

제4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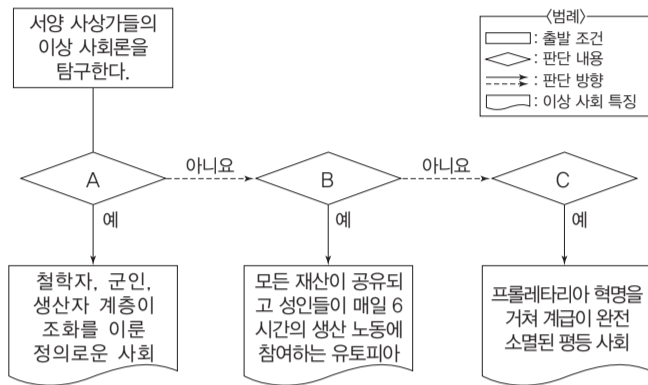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그림의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 하는가?
 ㄴ. A: 통치자는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철학자가 되어야 하는가?
 ㄷ. B: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ㄹ. C: 사유 재산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다음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순수한 실천 이성만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을: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만 의에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임이 틀림없다.

<보기>

ㄱ. 갑은 도덕과 행복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ㄴ. 을은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고 보았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다음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천하 사물에는 그 이(理)가 있지만, 이를 다 궁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지(知)에 다하지 못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에 나아가 그 이를 궁구하여 극진한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가 다름 아닌 천리(天理)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가 그 이를 얻게 됩니다.

<보기>

ㄱ. 만물에는 이치가 품부되어 있는가?
 ㄴ. 격물(格物)은 내 마음의 본체를 바로잡는 것인가?
 ㄷ. 지행(知行)의 경중을 논하면 지보다 행이 중요한가?
 ㄹ.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동양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삶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된 사람[真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고, 일이 잘되어도 자만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도(道)를 해치는 일이 없다.

- ① 탐욕을 버리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②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함을 추구하세요.
 ③ 예(禮)를 바탕으로 인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세요.
 ④ 시비(是非)와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고 옳음을 실천하세요.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세요.

5.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성(性)은 이(理)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이다. 하늘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어 선을 하려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하려 하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을: 성(性)은 심(心)이며 생동하는 이치(理)이다. 사람의 생리란 능히 밝게 깨달아 스스로 통달하며 능히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부터 고유한 덕으로서 곧 양지(良知)이자 인(仁)이다.

<보기>

ㄱ. 갑은 인간의 욕구가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마음의 천리(天理)를 잘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주체성이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모두 사물의 이치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두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정 올바른 반야를 일으켜 관조할 경우 찰나간에 망념은 모조리 없어지며, 자성(自性)을 인식하여 한 번 깨달으면 곧장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 '선정(禪定)'이란 무엇인가?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혼란되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형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혼란되며,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면 마음은 혼란되지 않는다. 본성(本性)은 그 자체로 깨끗하고 그 자체로 정립되어 있으나 다만 대상을 보고 대상을 생각하므로 혼란된다.

- ① 이론과 지식에 근거하여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해탈을 도모해야 한다.
- ③ 만물이 무상(無常)함을 깨닫고 무명(無明)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④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선(禪)의 수행으로 깨달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⑤ 불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바탕으로 불성을 깨닫는 견성(見性)을 실천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성은 위계적인 정리와 논리적 결론 도출의 과정을 도덕적 행위의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은 관련자들과 말하고 그들의 눈과 얼굴 표정을 보며 전체적 상황을 평가하고 싶어 한다. 결국 여성의 도덕적 결정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보기>

ㄱ. 공감이나 관계성보다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ㄴ. 행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ㄷ. 서로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ㄹ. 도덕적 감정보다 도덕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은 합리적 이성 의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나) 인간은 서로 배려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며,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다.

- ①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다.
- ② 공동선은 별도로 있지 않고 개개인의 선을 합한 것이다.
- ③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따르도록 지시하면 안 된다.
- ④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⑤ 인간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관계적 자아이다.

9. 다음 사회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하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때 허용된다.
 을: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하다.

- 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만 하면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가?
- ② 복지 증진은 기본적 자유 보장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③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가?
- ④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제한을 가해도 되는가?
- 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가?

10. 다음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신은 곧 자연이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유일한 실체이다. 만일 우리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인과 관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을: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감각에 주어진 것들을 다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모든 것을 일생에 한 번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명석 판명한 것을 찾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거짓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small;">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x-small;">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보기>

ㄱ. A: 인간은 자연이라는 실체가 변한 모습인 양태의 지위를 갖는가?
 ㄴ. B: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살아갈 때 덕스러워질 수 있는가?
 ㄷ. B: 자유 의지를 통해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ㄹ. C: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진리를 연역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다음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신(神)도 없고 정해진 인간 본성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을: 현존재로서 인간은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라는 현존재의 의미를 물음으로써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 ① 갑은 인간이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이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개인적 삶보다 공동체적 삶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한계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성에 기초한 도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 서양 사상가의 관점을 계승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쾌락이 목표라고 말할 때, 이는 방탕자의 쾌락이나 육체적 향락에 의존하는 쾌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것, 성적인 관계 그리고 산해진미나 사치스러운 식탁을 즐기는 것이 쾌락적인 삶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쾌락을 절제하는 이성, 즉 모든 선택과 거부에 대한 동기를 검토하고 흥분이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그러한 의견을 몰아내는 이성애 의해 제공된다.

- ① 주체성이 진리이다.
- ②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 ③ 이성은 신과 세계와 인간의 본성이다.
- ④ 유용성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⑤ 인간은 '살고자 하는 생명들로 둘러싸인 생명'이다.

13. 다음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의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또 만약 덕이 여럿이라면 그중 최상이며 가장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인간의 행복이다.</p> <p>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p>
(나)	

- ① A: 행복은 도덕적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② B: 행복은 내세에 신과 하나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 ③ B: 행복한 사람은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한 유덕한 사람이다.
- ④ C: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을 갖춘 사람이 이상적 인간이다.
- ⑤ C: 모든 지식을 신앙과 계시로 환원시킬 경우에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어떤 일이 개인의 쾌락의 총계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갖는 경우 또는 그 개인의 고통의 총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갖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에는 그 행위는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을: 쾌락의 원천이 인간이나 돼지에게 있어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생활의 규칙은 돼지에게도 선한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은 동물의 욕정을 넘어 고도의 세련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능력을 한 번만 자각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ㄴ. 행복은 이성애 알맞은 덕스러운 활동이다.
 ㄷ. 유용성은 도덕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ㄹ.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 퍼즐의 세로 낱말(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사회 속으로 편입될 때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 평등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들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p>
(나)	<p>[가로 열쇠] (A): 자기 나라의 고유 전통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태도나 입장을 말함. (B): 집을 떠나 감 또는 속세(俗世)를 떠나서 승려가 됨.</p> <p>[세로 열쇠] (A): 개념</p>

- ①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공동체이다.
- ②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 ③ 가족과 시민 사회의 원리가 결합된 최고의 인륜이다.
- ④ 절대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인하여 저절로 발생한 것이다.

16. 세 사상가 모두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쏟도록 허용되면 너무나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도움 없이 그것만으로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을: 이 세상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도 않으며 그렇게 관리될 수도 없다. 사회적 이익의 관점에서 자본재의 한계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병: 경쟁은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직업이 전망이 있는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 경쟁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

	질문	갑	을	병
①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해야 하는가?	예	예	예
②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③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④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 복지를 확장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⑤	계획 경제의 실현으로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17. 다음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의 정(情)은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의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니 또한 불선함이 있지 않다. 그런데 기가 발함에 들어맞지 않아 이를 없애니 방만하게 되어 악이 된다.

을: 이(理)와 기(氣)는 혼용되어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동하여 정이됨에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까닭은 이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할 것이요, 이가 아니면 발하는 까닭이 없을 것이니 어찌 이발 기발의 다름이 있겠는가?

<보 기>

- ㄱ. 갑은 이와 기에 동정(動靜)이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본다.
- ㄷ. 갑과 달리 을은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모두 마음[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사상가의 윤리적 관점에만 있는 대로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도덕은 사람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성립된다.			✓	✓	✓
지식은 실제 생활에 유용하다고 검증될 때에만 참이다.	✓			✓	✓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과 지식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체성이며, 오로지 주체성에만 그것의 진리가 존재한다. 철학은 객관적으로 되는 것을 가르치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즉 진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가르친다.

- ①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②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인간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추구를 학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주체성이 진리이고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 ⑤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곳에는 옳고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국가는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 ②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③ 국가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 ④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한다.
- ⑤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의 절대적 권력은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